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篇 (3-2)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朝齒 第2回 定期總會

朝鮮齒科醫師會 第2回 定期總會 第2일은 5月 20日 (1947) 上午 10時부터 前日과 같이 서울齒大講堂에서 開催하여 總會宣言이 있자 議長에 林澤龍就任하고 中央常務委員을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總務部 徐丙瑞, 劉時學 △學術部 金文祚, 金永昌 △資材(醫事)部 趙鋪起, 崔義鍾 △財務部 李東奐, 李雲經 △調查部 韓東喆, 金鍾玉 △學會委員 徐永圭(大邱), 殷仲基(光州), 金淳培(釜山), 서울後日發表 △特別研究委員會委員後日發表.

劉龍甲—金溶瑒은 어느 代表로 銓衡委員이 되었는가. 허수아비選出를 認定할 수 없으니 再選하라.

고 峻烈한 要求에 林榮俊, 李迥柱, 金然浩, 徐丙瑞등이 <서울市 齒科醫師會 代表로 銓衡委員의 權限이 있다> 應酬하였으나 劉龍甲, 趙鋪起, 朴鍾文, 姜秉熙등은 이를 反駁하여 議場이 騷亂해지고 會는 續會劈頭 危機에 直面하자 林澤龍, 崔海雲, 金昌圭등 連달아 銓衡委員을 辭任한다고 言明, 無秩序하게 甲論乙駁戰이 展開된後 再選할 것을 可決.

銓衡委員 = 金昌圭(慶南), 崔海雲(慶北), 李熙昌(京畿), 林澤龍(全北), 金然浩, 徐丙瑞, 李迥柱, 趙鋪起(以上 中央), 金文祚(前委員) 등 9名이 別室에서 銓衡할 동안 休會하고 下午 1時 20分 續開하자 金昌圭로 부터 다음과 같이 銓衡結果를 發表(拍手) ※ ○票當選.

▲委員長 ○金溶瑒 7票, 鄭保羅 1票, 安鍾畫 1票, ▲副委員長 ○林澤龍 7票, ○申仁澈 6票, 林榮俊 2票,

金昌圭 2票, 李有慶 1票 ▲學會長 ○朴明鎮 7票, 趙吳衍 2票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趙吳衍 8票, 鄭保羅 1票 ▲中央委員, 各支部委員長及首席副委員長, 文箕玉, 金然權, 林榮俊, 鄭保羅, 李熙昌, 李有慶, 李昌鎔, 李東奐(開城), 洪思根, 趙明鎬, 安炳植.

▲議案 (가) 醫齒一元化에 關한 件

討議에 들어가기 前에 申仁澈로부터 經過報告후 林榮俊으로부터 5月 15日 開催한 一般醫師側과의 <醫療制度改革에 關한 座談會>는 醫齒一元化가 可能하다는 曙光을 보여주었다고 報告.

崔義鍾—醫齒一元化鬭爭委員會를 構成하자.

林榮俊(淳山)로부터 <醫齒一元化는 齒科醫師를 爲함이 아니다> 前提하고 그 目的達成을 爲한 熱情을 吐露한後 劉時仲(群山)도 舍箭을 기울려 言言句句 그 必要性을 強調하고 最後까지 鬭爭할것을 力說하니 滿場拍手.

林澤龍議長—醫齒一元化는 全北道齒科醫師會로서 이 미 推進기로 可決하였다. 藥配給에 있어서 醫生の 資格조차 주지 않는 此際에 齒醫務局長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웅소웅소拍手) 우리는 醫齒一元化의 實踐方法을 講究하자.

林榮俊一朝齒로서 醫齒一元化를 推進할 것을 動議한다.

滿場拍手로 再請하여 <醫齒一元化推進>을 可決하고 名稱은 朴壽敬(馬山)으로부터 <建國醫療改革會>의 提議가 있었으나 <醫齒一元化促成委員會>로 決定한後 委員選定에 앞서 崔義鍾의 <委員은 齒科醫師 以外로 法界, 學界에서도 選出하자>는 動議를 採擇.

尹麒煥(全州)—委員은 銓衡委員 5名이 選定하는 것이

의 週間을 希望한다.

는 動議가 있었으나 結局 來年부터 5月 5日부터 口腔衛生週間에 들어갈 것을 可決하고 今年은 이미 포스터를 印刷한 關係上 從前대로 할 것을 決定하였다.

끝으로 金昌圭(釜山)로부터 週間中에는 라디오, 新聞을 利用하여 口腔衛生을 大的으로 宣傳하라는 希望意見이 있었다.

▲議案 (사) 特別市齒科醫師會統一에 關한 件

金溶瑤, 申仁澈兩人이 統一의 握手를 하였으니간 이 問題는 削除하자는에 對하여

文箕玉一削除理由를 分明히 記錄하다. 申總務는 個人的으로 握手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되면 또 統一은 꺼지고 만다.

尹麒炳(全州)一分裂의 原因은 무엇인가.

崔海雲(大邱)그런 것을 또 꺼내면 統一이 안된다.

이 以上 追窮말고 無條件統合하는 것이 가장 옳다.

梁承範一둘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간다는 말이 있다. 少數는 多數를 따르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1이 多數를 形成할 수도 있다. 如何間 分裂의 雜草는 뽑아서 대위 버리고 夫婦一心으로 나아가는 곳에 完全한 統一이 있다.

申仁澈一나는 京城齒科醫師會 總務로서 統一의 握手를 한 것이다.

趙鏞起一圓滿하기 爲해서 京城, 서울을 認定치 않는다 함으로 不得已 京畿道로 參席하였으니 申仁澈을 總務資格으로 統一의 握手를 하라고 보낸일은 없다.

尹麒炳一그러면 京城齒科醫師會는 存在하는가.

趙鏞起一現在는 存在하고 있다.

또 다시 統一問題로 論戰이 展開되어 議場이 騷亂하였다가 結局 朝鮮齒科醫師會로서 同一地域에 1支部以上 認定하지 않기로 可決(拍手)

▲議案 (아) 其他事項

限地齒科醫師 配置 및 資格問題로 釜山의 金昌圭, 李元述兩人으로부터 釜山, 馬山, 晋州 등 3府에 限齒를 配置한에 對하여 慶尙南道當局과 齒醫務局이 責任을 서로 轉嫁하는 言辭가 있었다 하여 醫齒一元化가 論議되는 此際에 이런 不當한 일이 續繼된다면 齒科界는 暗黑이라고 規定하고 이어서 馬山의 高相穆, 朴壽敬兩人도 限齒配置에 關聯한 齒醫務局과의 公文를 朗讀하면서 그 不當性을 論難한後 文箕玉으로부터 入齒師를 限地齒科醫師로 昇格當時 齒科醫師資格審査委員의 한사람으로서 그 性格을 詳述한다음 委員會와 齒醫務局長을 不信任하자는 動議가 있다.

趙鏞起一不信任보다 陳情書가 어떠한가. 하는 改議를 梁承範一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官尊民卑의 思

想이 있는 까닭이다. 緩和策은 不必要하다.

고一蹴, 結局 不信任(期限付) 動議를 擊手로 可決.

方河晏一新聞에 <생니빨>의 文字가 날때마다 부끄러우니 제발 나지 않도록 하다.

徐丙瑞一會로서 어찌할 道理가 없다.

李迥柱一市廳에는 市廳出入記者가 있고 警察署에는 警察署出入記者가 있다. 法曹記者들이 檢察廳에서 取材해서 掲載하는 것을 會로서 干涉할 수 없다.

朝鮮齒科機材株式會社로부터 5월에 配給한 美國製齒科機材의 購入券이 個人別로 配付된데 對하여 會를 無視하였다고 不平이 續出하고 齒材會社와 材料商을 同等으로 認定하느냐 어느 一方을 支持하느냐는 保留하기로 可決하되 善處할 것을 委員에게 一任하기로 決定한後 圓滑한 配給을 하도록 厚生當局에 建議하자는 全州 尹麒炳動議를 可決.

끝으로 梁承範으로부터 中央과 地方이 緊密한 連絡을 取하기 爲하여 <連絡部>를 設置하자는 動議와 再請이 있어서 可決.

▲萬歲三唱=金溶瑤委員長登壇, 委員長先唱으로 <朝鮮齒科醫師會萬歲>를 感慨無量하게 三唱.

▲閉會辭=林澤龍副委員長으로부터 簡單한 閉會辭가 있는 다음 閉會宣言(下午 7時 20分)

▲總會出席者=朴明鎮, 安炳植, 朴扶榮, 柳邦燮, 文昌周, 金永昌, 金貞奎, 朴琦用, 申仁澈, 趙昊衍, 金喆庸, 李迥柱, 鄭保羅, 金文祚, 崔義鍾, 文箕玉, 林榮均, 李昌鎔, 吳孝善, 李熙昌, 李東煥, 宋泰享, 明寅植, 閔榮俊, 朴殿重, 金溶瑤, 李奎明, 吳鉉敏, 金載天, 金岐宇, 李順伊, 金鍾玉, 林榮俊, 洪思根, 金然浩, 梁承範, 李東煥, 趙洪淵, 孫洪兌, 李聖民, 徐丙瑞, 李有慶, 趙鏞起, 朴鍾文, 朴三壽, 姜秉熙, 劉福辰, 方河晏, 趙興洙, 劉時學, 李雲經, 劉龍甲, 崔海雲, 崔俊卿, 白洪鎮, 宋在星, 金鍾翼, 李鍾夷, 崔錦鳳, 金昌圭, 李元述, 金基煥, 林興俊, 申鍾胤, 朴楨夏, 高相穆, 朴壽敬, 安義成, 金允石, 林澤龍, 高漢俊, 尹麒炳, 李敏五, 劉時仲, 田基培, 鄭潤鈺, 林俊鎬, 盧基燮, 金性度, 曹珣, 金浚坤, 李濟瓊, 李景萬, 朴成實, 方思郁, 金鍾聲 (以上 無順, 各所屬地名 省略, 忠北 및 江原缺席)

서울市 齒 定期總會

서울市齒科醫師會 第2回 定期總會는 (1947) 6月 1日 上午 11時半부터 서울齒大講堂에서 開催, 徐丙瑞總務로부터 閉會를 宣言하고 會員點名에 들어가 68名 出席으로 總會成立의 宣言이 있는 다음 愛國歌奉唱이 있었고 金溶瑤委員長으로부터 <過去 1年間 齒科界에 混亂이 많

있던 것은 分裂에 基因되는 것이었다. 한텡어리로 몽치자는 것이 나의 初志였고 이 目的達成을 爲하여 努力한 結果 昨年 12月에 統一이 成就되었었는데 얼마안가서 한사코 分裂을 主張하는 不純分子로 말미암아 再分裂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몽치자는 나의 初志는 變함이 없으며 더구나 過般 朝齒總會에서 統一이 可決되었으므로 單一會를 만들기 爲하여 이런 定期總會에 相對方會員에게도 招請狀을 내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아직도 京齒側의 對立觀念이 確固한 것은 遺憾이다. 本會委員長에 就任當時 今春가지만 일을 보겠다 말하였고 이번에 朝齒의 일도 보게되어 辭任하는 바이니 아무쪼록 圓滿한 勳을 推戴하여 齒科界의 混亂을 收拾하여 주기 바란다>는 開會辭, 이어서 各部 報告에 들어가서 總務部(徐丙瑞), 資材部(金鍾玉), 財務部(金載天, 柳邦燮) 報告中 紛炭配給에 關한 金委員長의 補充說明이 있은 後 1947年度 豫算案을 一部 修正하고 通過, 朝齒代議員報告(林榮俊)

▲臨時執行部選舉 = 議長으로 文箕玉을 選出하고 書記에 李聖民, 洪思根.

▲現委員總辭任宣言 = 受理可決하고 金文祚로부터 辭任委員에 對한 感謝말을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를 採擇.

文箕玉議長 一是是非非는 莫論하고 齒科界를 爲하여 努力을 아끼지 않은 委員諸位에게 敬意와 謝意를 表한다.

金溶瑯 一過重한 感謝말씀에 부끄럼기 限이 없다. 誠心誠意를 가지고 努力하기는 하였으나 아무 成果가 없어서 죄송하다.

▲會則修正案討議에서 金然浩의 修正條項 說明이 있자 林榮俊의 修正案範圍內에서 修正할 것을 新委員에 一任하자는 動議를 可決.

▲委員選舉 = 證衡制를 採擇하여 證衡委員으로 李迥柱, 林榮俊, 廉潤澤, 申仁澈, 趙吳衍, 文箕玉, 尹思植 등 7名을 選出한 後 前委員長 金溶瑯을 總意에 依해서 追加하고 下午 1時 休會宣言, 同 2時半續會하자 趙吳衍 證衡委員으로부터 新任委員을 다음과같이 發表(拍手)

△委員長 文箕玉, 副委員長 尹思植, 同 金殷鍾 ▲中央委員 安炳植, 洪思根, 金然浩, 朴扶榮, 李迥柱, 李應高, 申仁澈, 文昌周, 李聖民, 李壽萬 △常任委員 金載

天, 廉潤澤, 金淵泰, 柳邦燮, 金漢慶, 鄭大燮, 申欽億, 薛潤東, 方慶孫, 申義澈, 趙興洙, 姜秉熙

金鍾玉으로부터 非會員을 委員에 選任한 理由는 어디 있느냐고 證衡結果를 論難한 즉 趙吳衍 證衡委員이 <오늘 總會는 統一會로 생각하였으므로 出席지 않은 會員이라도 統一을 前提로 選出한 것이다>고 應答한 後 總會性格에 對한 見解相違로 前記兩人을 비롯하여 林榮俊, 李迥柱, 金然浩, 申仁澈, 金世卿 등 間에 激論이 展開되어 議長이 騷亂하였다가

林榮俊 一京齒會報를 본다면 申仁澈 總務를 統一의 握手를 하였다고 除名處分을 하고 그 後任을 補選함으로써 京齒存在性을 明確히 한 此際에 相對方委員을 이쪽 委員으로 選出한 것을 指摘糾明하는 金鍾玉會員의 發言은 當然하다. 證衡委員으로서 金鍾玉質問에 諒解를 얻는 것은 可히거니와 反駁하는 것은 不當하다. 金鍾玉會員! 되도록은 諒解 있기를 바란다.

는 情理에 金鍾玉은 輿奮을 풀고 微苦笑하는 한편 洪思根의 <統一을 爲해서 委員에 選出한 것이라던 萬若統一하지 않는 境遇는 事情없이 못버리고 補選을 하자>는 말에 笑聲, 드디어 明朗을 되찾고 滿場一致로 新任委員을 承認한 다음 新正副委員長의 就任人事가 끝나자 趙吳衍으로부터 證衡委員은 統一交涉을 爲하여 繼續活動하자는 提議에 反對도 있었으나 結局 拍手로 可決 討議事項에 들어가기 前에 廉潤澤의 <美蘇共委에 謝意를 表하자>는 緊急動議를 可決採擇하되 그 方法과 時日은 委員一任으로 決定.

▲討議事項 (가) 醫師一元化件 = 滿場一致可決

(나) 口腔衛生強調週間件 = 大다의으로 週間行事를 展開하되 그 具體案은 委員一任可決

(다) 會名稱變更件 = 朝齒會側에 依해서 <朝鮮齒科醫師會 서울市支部>로 改正하자는 說과 <首都齒科醫師會>로 하자는 말도 있었으나 舊名 대로 <서울市 齒科醫師會> 可決

(라) 其他事項 = 金配給할 것과 惡德齒科醫師云云의 陋名을 벗도록 善處할 것을 朝齒에 建議하기로 可決하고 慶弔金은 弔慰金 5百圓, 慶祝金 3百圓으로 可決. 電話架設에 對하여는 會로서 建議하되 그 方法은 委員一任기로 可決하고 下午 5時半 閉會.